

전남 지역구 축소 1곳이나 2곳이나

■ 선거구 확정위, 2개안 국회 제출 전망

한나라 “영남과 같이 전남도 2곳 줄여야”

통합민주 “숫자 대비 적절 안해 ... 1곳만”

18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개의 선거구 확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전남지역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추천 선거구 확정위원들은 영남에서 2개의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전남에서도 2개의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광주 광산구의 분구로 광주에서 1개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남에서 2개의 지역구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 추천 선거구 확정위원 등은 전남지역에서 1개의 지역구 감소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으며 전남과 영남의 지역구 조정 숫자를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13일 밤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밤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2개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전남지역 선거구 조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제1안=전남에서 2개의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광주에서는 서구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고 광산구가 2개의 선거구로 분할된다. 광주 8개 지역구, 전남 11개 지역구로 조정되는 안이다.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30만1천646명~10만549명이 적용되며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43개에서 245개로 늘어난다. 이 안을 적용하면 광주·전남지역 전체 의석수는 17대 국회에 비해 1석이 줄어든 19석(광주 8, 전남 11)이 된다.

전남지역 선거구 조정 내용은 우선 여수시가 2개의 선거구에서 1개로 통합된다. 여기에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광양·구례→광양시 ▲담양·곡성·장성→담양·곡성·구례 ▲영광·함평→함평·영광·장성

▲해남·진도→해남·진도·완도 ▲장흥·영암→장흥·영암·강진 등으로 전남지역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1개의 선거구가 더 줄어든다.

◇제2안=전남지역 선거구가 1개만 줄어드는 내용이다. 여수시만 1개의 선거구로 통합되며 지역구 조정 등을 통해 전남지역 의석수는 12개가 된다.

광주는 1안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고 광산구가 2

개의 선거구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의석수는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석(전남 12, 광주 8)을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47석으로 4석이 늘어나며 인구 상하한선은 29만9천204명~9만9천735명의 기준이 적용됐다.

전남지역 지역구는 ▲광양·구례→광양 ▲담양·곡성·장성→담양·곡성·구례 ▲영광·함평→영광·장성 ▲나주·화순→나주·함평 ▲장흥·영

암→화순·장흥·완도 ▲강진·완도→영암·강진 등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진·완도 지역구를 영암·강진으로 조정하고 완도를 해남·진도로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구상하한선이 무너진 강진·완도로 인해 인근 선거구인 영암·장흥 지역구가 사실상 붕괴된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추진 방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레문 국민성금’ 논란 진화 부심

인수위 “정부 예산으로 감당 ... 오해 풀어졌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송레문 국민성금 복원’ 제안에 국민의 거센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인수위가 “오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경숙 인수위위원장은 13일 오전 간담회에서 “이 당선인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 안 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원인 규명, 앞으로 역사적 교훈을 삼아 철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송레문 복원을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당선인의 국민성금 제안 취지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스스로 치유 받는 과정에 동참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에게 부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어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졸속 복원’ 논란에 대해서

도 “복원만 빨리빨리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철저한 책임규명과 시설점검, 대책마련을 강조하면서, “상처 깊은 국민의 마음을 함께 보듬으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총정에서 나온 마음의 표현이었는데 너무 상처가 깊다 보니까 울분이 가지 않는데 부분 부분 나오는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남 이 당선인의 국민성금 발언 직후 “이 당선인의 뜻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욕을 보인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한편, 이 당선인은 전남 오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자 “관 주도 모금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데 진의와 달리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레문 화재 기관·업체도 처벌

‘송레문 방화’의 피의자 체포(70)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화재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경비업체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피의자가 구속되는 대로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문화재청, 소방당국, 경비업체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중구청이 당초 예스원에 무인경비를 맡겨오다 최근에 와서 KT텔레캅으로 경비업체를 변경한 경위로 수사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청은 예스원측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무인카메라 경비용역을 맡겨오다 지난달 30일 KT텔레캅에 5년간 무상으로 기계 경비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경비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기계의 정상 작동 관리감독 여부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약사를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중구청에 있다고 해도 모든 문화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송레문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대해서도 경찰은 송레문 화재 발생시각은 오후 8시 이후로 근무자가 퇴근한 이후였다”며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경비순찰을 규정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구청 직원 소환... 소방당국 조사 할 듯

경비업체 변경 경위 여부도 수사 불가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송레문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10일 심야에 중구청 공무원들과 직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소환해 화재 원인 및 소방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끝마친 상태다. ‘송레문 관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받아 송레문을 경비·관리해온 중구청 공원직과다.

경찰은 “화재 발생시각은 오후 8시 이후로 근무자가 퇴근한 이후였다”며 “근무자가 근무시간과 경비순찰을 규정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당선인·한나라-민주 조직개편안 대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가칭)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놓고 정면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당선인과 한나라당은 1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질총실과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압박을 대중에 영향하는 ‘여론몰이’로 비판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당선인·한나라당=통합민주당이 끝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대할 경우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취임 후 수개월 동안 ‘불안정 내각’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당선인은 막판까지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 측은 “합상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이 당선인도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14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15일 정국돌파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은 각료 명단을 발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오늘 내일은 마지노선 얘기보다는 협상 얘기를 해야지”라고 말해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 “총선 정략적 발상... ‘파행 조각’ 단행될 수도”

통합민주 “대중 영합하려는 여론몰이식 정치 공세”

이 당선인측은 현재 협상 결렬시에 대비해 ▲국무위원 후보지만 임명하는 방안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논란이 되는 부처를 제외한 부처 장관관 임명하는 방안 ▲논란이 되지 않는 부처 장관부터 몇 개씩 묶어 발표하는 순차조각 등 3가지 조각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 독립기관화 등 양보할 만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존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발목잡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가칭)=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의연하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저와 당이 정략적,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정치공세”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전면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정부의 일방적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며 “솔직히 총선만 생각하면는 딱 감고 처리해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국가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밀어붙이식 공세에 밀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하는데 여당과 집권세력의 미확은 양보에 있다”며 “여당은 양보하지 않고 야당이 양보하는 정당사가 유래가 있는가. 양보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 재검토를 해서 협상장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제약품의 시인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
국민의 “소비자가 뽑은 올드잡고살”을 수상하였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붕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허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갖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맑고 건강한 눈을 위한 사랑을 전합니다!

카푸치노, 티라미수 등에서도 인맥이
우리 아이는
밤을 새우며도 잊지않고 자살을 당하는
이해의 눈
눈빛과 감정의 차이를 사서도 사서
업이 아닌
행복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카푸치노 증안액
300ml 100% 천연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신드롬 류 증안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도류발 아예스 증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100% 천연 카푸치노 추출액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internationalpharm.com
080-022-2200